

전주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총력

상하수도본부, 신년브리핑 통해 상·하수도 분야 4대 중점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늘리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목표를 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최병집)는 14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상·하수도 분야의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주요 추진 방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과학적인 수돗물 관리로 고품질 상수도 공급 △체계적인 하수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신뢰받는 상수도 운영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13개년에 걸쳐 총 12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노후 급·배수관 159km 중 121km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서신동과 삼천동 일원의 남은 사업 구간 38km를 추진하게 된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14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상·하수도 분야의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다. 이후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중화산동 등 12개 동에 대해서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 524억 원을 투자해 금안1동과 인후1동의 노후 상수관로 36.9km를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과학적인 수돗물 관리로 고품질 상수도를 공급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노후 배수지 보

수·보강 공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고, 용담호 상수원부터 정수지와 배수지, 각 가정의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과별별 수질검사를 매일·주간·월간·분기별로 나눠 지속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 후에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와 '깨끗

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하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체계적인 하수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총 254억 원을 투입해 팔복(1.2분구) 등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287.6km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장비 대수선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또 2005년부터 추진해왔던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 미완료된 신기마을 등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신뢰받는 상수도 운영 체계 구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수도요금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다량수용가 일제 점검 등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 △상하수도요금 이차정산 시스템 운영 등 신속·정확한 상수도 운영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해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병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 친환경 상·하수도 관망 관리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 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공동체라디오' 개국

전북지역 유일 시민라디오 방송 FM93.5Mhz로 송출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는 전북지역 유일의 시민라디오 방송이 송출된다.

전주공동체라디오는 14일 오후 2시 전주역 인근 맛집창업교육관 5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안병천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장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경과 보고 △축사 △방송국 임직원·위원·제작자 소개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공동체라디오는 개국식에 이어 내빈 및 참석자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 체험과 주요 시설 라운딩 시간도 마련했으며, 행사는 전주공동체라디오 FM 93.5Mhz와 유튜브 전주공동체라디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주공동체라디오는 시민의 목소

리를 시민의 참여 속에서 담아내는 전북지역 유일의 시민라디오 방송국으로,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8시간 동안 FM 93.5Mhz를 통해 음악과 문화,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방송 내용은 △지역 소식 생크리터 △생활정보 △문화예술포럼 △시사 의견 △취미·일상 △소외계층 등으로 구분되며, 전주공동체라디오 오는 주진이 주인인 민중적 공동체 방송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공동체라디오가 앞으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주민의 결여에 생생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진정한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병원, 아프리카 해외 의료봉사

케냐 바링고주 일원서 10일간 무상 진료·수술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북대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해외의료봉사단이 10일간의 일정으로 케냐 바링고주 일원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케냐 해외 의료봉사활동에는 이석(신장내과), 김찬영(소화기내과), 황홍필(간담체이식외과), 정태오(응급의학과), 황정환(감염내과), 김중현(흉부외과), 이세열(대자간병원 외과), 문성신(대자간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등 8명의 의료진과 간호사 6명(김지연, 김현중, 김현주, 이경민, 임혜리, 이지은), 일반 자원봉사자 3명(김미선, 김경, 이정은)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포코트(Pokot)지역 등을 방문하여 총 1300여 명의 주민들을 진료하였고, 가

바넷 레퍼럴 지역거점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 6건, 등쪽 낭종제거수술 1건을 진행했다.

의료봉사활동 외에도 의학교육 세미나, 한국 문화 소개 등 현지인과의 문화 등 교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대병원은 케냐 바링고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료와 의료진 교육 및 연구 활동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케냐 바링고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현지의료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겠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의료 시설과 인력이 취약한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자 모집 승인

일반분양가 3.3㎡당 1490만원

전주시는 14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에서 제출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일반분양가는 3.3㎡당 1490만 원으로, 이는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당초 조합측이 최초 신청한 1649만 원에서 3.3㎡당 159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법

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주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일반분양가의 책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조합에서 제출한 일반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검토했으며, 지난달 24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합에 최초 신청 금액인 3.3㎡당 1649만 원의 분양가를 조정토록 권고했다.

해당 조합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 상

승과 택지비의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강제력이 없는 시의 일반분양가 조정 요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적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와 전주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동향, 지방 정비사업 일반분양가 현황 등을 검토한 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결국 조합은 수차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49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2800만 원(최초 신청 금액 대비 300만 원 감액)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3개 단지 28개 동이며,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59㎡A형 72세대 △59㎡B형 105세대 △73㎡A형 88세대 △73㎡B형 130세대 △73㎡C형 43세대 △84㎡A형 554세대 △84㎡B형 145세대 △84㎡C형 11세대 △120㎡C형 77세대 총 1225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폭 지원

전주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8억21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4억6500만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

로, 환경부가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슬레이트 완전 철거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는 슬레

이트 지붕 철거 161개 동, 지붕 개량 50개 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우선가구에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에 최대 628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반가구의 경우 지붕철거 비용 최대 352만 원과 지붕 개량 비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로, 지원 희망자는 전

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6일부터 3월 15일 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